
한국어 주격과 목적격 중출구문의 어순배열에 대한 유형론 적 접근

중국 상해상학원 한국어학과 백련화

<논문개요>

한 언어의 기본어순은 그 언어의 문법적 특징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며 반면에 언어의 문법적 특징은 어순배열에도 작용을 주기 마련이다.

한국어의 기본어순은 SOV이다. 언어 유형론에서 SOV 구조를 취하는 언어는 명확한 격 표지를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구별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어는 형태가 발달한 언어로 주어와 목적어를 표기하는 명확한 주격표지와 목적격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격 중출, 목적격 중출현상도 존재한다(예하면, <영희가 마음씨가 곱다>와 <옷을 너무 큰 것을 샀다>이다). 이렇듯 한국어 구문 내에서 주격은 많이는 3 개, 목적격은 많이는 5 개까지 허용한다(예하면, <그 책이 표지가 색깔이 마음에 든다>와 <내가 영희를 고등어를 큰 놈을 싱싱한 것을 세 마리를 주었다>). 일반적으로 형태적 표기가 발달하면 어순배열이 자유롭지만 주격과 목적격 중출 현상을 가진 한국어 구문은 어순 배열에 있어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 내부에는 규칙과 제약이 동반한다.

본고는 언어유형론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어 주격 중출, 목적격 중출 구문에서 한국어 어순은 어떠한 제약을 받을 것이며 격 표지와 어순간의 상호작용을 인지, 심리 또는 언어 내적 규칙으로 살펴보고 그 내재적인 규칙과 제약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Analysis of Arranging Word Order in Korean Double Nominative Sentence and Double Object Sentence from Typology Perspective

BAI LIANHUA, Korean department, Shanghai business school, China

Abstract

Basic word order influences grammatical features deeply in one language as the grammatical features do effort on the sequence of word order similarly. The basic word order in Korean is SOV type, and this type language should use case-mark to distinguish subject and object in terms of language typology. There are not only nominative case-mark and objective case-mark but also double accusative and double nominative in Korean(e.g. yeonghui-**ga** maeumssi-**ga** gopda and os-**eul** neomu keun geos-**eul** satda), besides this, phenomenon of multi-nominative case-mark(three subjectives) and multi-objective case-mark(four or five objectives) appears simultaneously is also existent(e.g. geu chaeg-**i** pyoji-**ga** saekkkar-**i** maeume deunda and naega yeonghui-**reul** godeungeo-**reul** I keun nom-**eul** se mari-**reul** jueotda).

General language rule is more developed morphological markedness more free word order, but the word order sequence in Korean double nominative sentence and double object sentence is limited by regulation and agency internal.

This article attempt to analyse the limited relationship in word order sequence in Korean double nominative sentence and double object sentence, and describe the interaction between case-mark and word order by means of cognitive, psychology, internal regulation of language etc. and find the internal motive and constraint.

-글의 구성-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어순과 형태표지에 관한 선행연구2. 한국어 목적격 중출 구문3. 한국어 주격 중출 구문4. 결론 |
|---|

1. 어순과 형태표지에 관한 선행연구

Greenberg(1963)가 귀납한 45 가지 보편법칙 중에서 유형참조항이 "전/후치사" 및 격과 함축관계를 가지고 있는 보편성 원리만 해도 10 가지(GU2, 3, 4, 5, 9, 24, 27, 38, 39, 41)가 되며 논항성분의 어순에 관한 것은 4 가지(GU3, 4, 5, 41)가 있다.

“만일 한 언어에서 동사가 명사성 주어와 목적어 뒤에 놓이면 이 언어는 격을 가지고 있는 언어다” (GU41)

陸丙甫(2009)는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동사 뒤에 놓이는 언어는 우세적인 어순이 SOV 이며, 기본어순이 SVO 또는 VSO/VOS 인 언어보다 격을 더 수요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것은 SVO 언어는 위치 즉 어순으로 논항을 구분할 수 있고, VSO/VOS 언어는 논항이 V 뒤에 놓이기 때문에 명사성 성분의 논항판별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¹.

Comrie(1989)는 SOV 언어는 격표지로 행위자(Agent)와 수여자(Patient)를 판별하는데 이유는 SOV 언어는 행위자와 수여자가 모두 핵심동사에 전치하기 때문에 명확한 격표지가 없으면 어느 것이 행위자이고 어느 것이 수여자인 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SOV 언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적어 전치(주제화) 또는 주어 후치(초점화)현상에서도 격표지의 사용이 우리로 하여금 주어와 목적어 구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SOV 언어는 타 언어보다 형태적 표기(더우기는 주격표지와 목적격표지)를 더 수요로 하고 있다.

한국어는 어순이 자유롭고 형태가 발달한 언어로 주어와 목적어를 표기하는 명확한 주격표지와 목적격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격 중출, 목적격 중출현상도 존재한다. 한국어에서 주격은 많이는 3 개(예하면 <그 책이 표지가 색깔이 마음에 든다>), 목적격은 많이는 5 개(예하면 <내가 영희를 고등어를 큰 놈을 싱싱한 것을 세 마리를 주었다>)까지 허용한다. 이때 한국어 구문은 어순 배열에 있어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 내부에는 규칙과 제약이 동반한다. 주격과 목적격 표지가 중복 표기될 때의 어순배열이 받는 제약, 뒷면에 내재하고 있는 각종 규칙, 그리고 격 표지와 어순간의 상호작용 등등을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다.

2. 한국어 목적격 중출구문

한국어 구문에서 목적격표지는 중복 출현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을 "목적격 중출"현상이라고 한다. 한국어 목격 중출 문제에 대해서는 임흥빈(1972),

¹ V 가 앞에 놓이는 언어에서 V 는 논항성분을 예시해 주는 표기들을 함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Tagalog 어에서 V 는 형태표기로 뒤에 오는 논항 중 어느 것이 화제 또는 초점을 나타내는 지를 제시해 준다.

성광수(1981), 김영희(1986), 양정석(1987), 서정수(1991), 우형식(1996), 유승섭(2004)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본고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한국어 목적격 중 출구문을 아래와 같은 3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².

유형 1: 소유-피소유관계

(1)그물 속에서 훌쩍훌쩍 뛰는 것을 숨통을 한 대 갈기니 옆으로 쓰러졌다

유형 2: “N-A” 또는 “N-Q-CI”관계

(2)옷을 너무 큰 것을 샀구나

(3)사과를 두 상자를 배달해달라고 했다

유형 3: 다른 격과 교체가능

(4)그런데 왜 그리 중을 장삿군 대접을 했어요?

(5)마을의 가장 건장한 노동력을 밤낮없이 기름통을 지켜보는 일에 동원했다

(6)두 아이를 모두 고된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유형 1 과 유형 2 에서 “을/를”에 표기된 A 와 B³는 의미상 “전체-부분”을 구성한다. 유형 1 의 “훌쩍훌쩍 뛰는 것”과 “숨통”은 “소유-피소유”관계로 목적격이 속격 “의”를 대체한 예문이다. 이때 “훌쩍훌쩍 뛰는 것”과 “숨통”은 분리되어 각기 동사의 의미지배를 받게 되고 표층구조에서 논항성분로 된다. 유형 2 에서 “너무 큰 옷(N-A)”과 “사과 두 상자(N-Q-CI)” 역시 “너무 큰 것”과 “두 상자”의 신분상승으로 인해 표층구조의 논항성분으로 되었다. 이때 논항성분 A와 논항성분 B의 어순배열에는 아래와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1)A 는 이동할 수 있음, B 는 이동할 수 없음.

2)A 는 앞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음, B 는 A 에 전치할 수 없음.

3)A 와 B 는 앞으로 같이 이동할 수 없음.

예(7~10)은 논항성분 A와 B의 선후 배열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7) a. 친구들이 나를 등을 밀어 무대에 나서게 하였다

b.* 친구들이 등을 나를 밀어 무대에 나서게 하였다 (*B-A)

c.* 나를 등을 친구들이 밀어 무대에 나서게 하였다 (*A-B-S)

² 유승섭(2004)은 한국어 목적격 중출현상을 겉목적격구문(예 1)과 겉목적어구문(예 2)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예(1): a.철수가 언어학을 공부를 한다

b.철수가 영희를 손을 잡았다

c.어머니가 아이를 젖을 준다

예(2)a.선생님은 공부만을 생각을 한다

b.낚시꾼이 고기를 세시간을 잡았다

c.철수가 음식을 빨리를 먹는다

d.나는 영희를 보고를 싶다

.....

예(1a)에 대해서 학계의 논의가 일치하지 못하다. 그것은 “공부를 한다”는 “언어학”의 서술어가 될 수도 있고 “공부한다”에서 목적격이 첨가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언어학의 공부”에서 목적격이 속격을 대체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구문들로는 예 3 과 같은 것이 있다.

예(3)a.아이가 숫자를 셈을 한다

b.(앞으로) 근혜가 대통령을 꿈을 꾸다

.....

예(1a), 예(2), 예(3)은 본고의 연구범위에서 제외된다.

³ 본고는 논술 전개의 편리를 위해 2 개의 목적격표지에 표기된 명사구조를 각기 A 와 B 라고 약칭한다.

- d. 나를 친구들이 등을 밀어 무대에 나서게 하였다 (A-S-B)
e. 나의 등을 친구들이 밀어 무대에 나서게 하였다 (A-의-B-S)

- (8) a. 그가 활을 쏘아 과녁을 한가운데를 맞혔다
b.* 그가 활을 쏘아 한가운데를 과녁을 맞혔다 (*B-A)
c.? 과녁을 한가운데를 그가 활을 쏘아 맞혔다 (?A-B-S)
d. 과녁을 그가 활을 쏘아 한가운데를 맞혔다 (A-S-B)
e. 과녁의 한가운데를 그가 활을 쏘아 맞혔다 (A-의-B-S)

- (9)a. 영수가 학생을 세명을 만났다.
b.* 영수가 세명을 학생을 만났다 (*B-A)
c.? 학생을 세명을 영수가 만났다 (?A-B-S)
d. 학생을 영수가 세명을 만났다 (A-S-B)
e. 학생 세명을 영수가 만났다 (A-B-S)

- (10)a.내가 선물을 예쁜 것을 영수한테 부쳤다
b.* 내가 예쁜 것을 선물을 영수한테 부쳤다 (*B-A)
c.? 선물을 예쁜 것을 내가 영수한테 부쳤다 (?A-B-S)
d. 선물을 내가 예쁜 것을 영수한테 부쳤다 (A-S-B)
e. 예쁜 선물을 내가 영수한테 부쳤다 (A-B-S)

위의 예문에서 (7)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7c)에서 A, B는 S에 전치할 수 없지만 (7e)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이는 목적격표지가 첨가된 “나를 등을”이 “나의 등을”과 대등한 것이 아니라 부동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7d)에서는 A만이 S에 전치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나를 등을”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분리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문(7a)에서 “나를”과 “등을”은 모두 동사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 두 목적어는 등가적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광호(1988)에서는 “주제화설”, 김귀화(1988)에서는 “초점화설”과 “소유주 인상설”로 해석하고 있다.

인류는 사물을 인식함에 있어 우선 전반적, 추상적인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 구체적인 부분을 인지하려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언어의 표층구조는 항상 선상배열의 방식으로 존재하기에 언어 인지 보편성 법칙은 어순배열에 반영되기도 한다. 비문 예(7b)는 이러한 어순배치(“B-A” 어순)가 인지 보편성 법칙과可別度高低(Identifiability Precedence motivation)⁴원리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실은 목적격표지의 과도 표기는 개별 언어만이 지니는 특수현상이 아니다. 하스바特尔(2003)의 연구 중에서는 중세기 몽고어, 고돌궐족어, 만어에는 모두 목적격으로 속격을 대체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⁵. 그러나 한국어 목적격표지의 사용은 더욱더 활약적이다.

- (11) a. 내가 영희에게 큰 고등어 세 마리를 주었다
 ↓ ↘ ↓
b. 내가 영희를 고등어를 큰 놈을 세 마리를 주었다

⁴ 可別度高低에는 “구정보 > 신정보, 화제 > 진술, 생명도가 높은 것 > 생명도가 낮은 것, 전체 > 부분, 많은 양 > 적은 양, 소유 > 피소유, 배경 > 도상, 구체적인 것 > 추상적인 것...”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전치해야 함을 나타낸다).

⁵ Haspelmath(1997)는 49개 언어의 목적격표지 사용현상을 조사한 결과 러시아어, 독일어, 아랍어 등 11개 언어의 목적격표지는 모두 중복 출현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陸丙甫, 2001 참조).

예(11b)는 4 개 목적격표지를 가진 문장이다. 일반적으로 형태표지가 부족하고 핵심이 끝에 놓이는 언어는 성분간의 의미파악이 모호하므로 여러 개 격표지를 중복 사용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한국어는 형태가 발달된 언어로 여러 의미를 나타내는 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11b)와 같이 목적격표지를 과도사용한다면 성분간의 의미 표현에 혼란을 겪지 않을까? 이때 어순배열은 또 어떤 제약을 받을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서 유형 3 을 살펴보기로 한다.

- (12)a. 내가 그 방의 한 쪽 벽을 빨간 색을 칠했다
 → * 내가 빨간 색을 그 방의 한 쪽 벽을 칠했다
 b. 내가 그 방의 한 쪽 벽에 빨간 색을 칠했다
 → 내가 빨간 색을 그 방의 한 쪽 벽에 칠했다

- (13)a. 그가 온 몸을 먼지를 뒤집어썼다
 → * 그가 먼지를 온 몸을 뒤집어썼다
 b. 그가 온 몸에 먼지를 뒤집어썼다
 → 그가 먼지를 온 몸에 뒤집어썼다

- (14)a. 이 쪽 항아리의 쌀을 밥을 지어라
 → * 밥을 이 쪽 항아리의 쌀을 지어라
 b. 이 쪽 항아리의 쌀로 밥을 지어라
 → 밥을 이 쪽 항아리의 쌀로 지어라

- (15)a. 철수가 너를 그 돈을 주겠느냐?
 → 철수가 그 돈을 너를 주겠느냐?
 b. 철수가 너에게 그 돈을 주겠느냐?
 → 철수가 그 돈을 너에게 주겠느냐?

- (16)a. 엄마가 아이를 우유를 먹고 있다
 → 엄마가 우유를 아이를 먹고 있다
 b.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고 있다
 → 엄마가 우유를 아이에게 먹고 있다

예(12a~16a)는 장소격(에), 도구격(로), 여격(에게)이 각기 목적격으로 표현됨으로 이중목적어구문을 이루며 예(12b~16b)에 비해 유형론적 표기를 가진다. 예(12b~16b)에서 간접목적어(2 차목적어)와 직접목적어(1 차목적어)의 어순은 자유롭지만 반면에 예(12a~16a)의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의 어순배열은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12a, 13a, 14a)와 같이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의 어순을 바꾸어 놓으면 어색한 문장(또는 비문)이 되고 (15a, 16a)에서도 “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의 어순이 더 순통하다.

이렇듯 목적격 중출구문에서 한국어 어순배열은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유형 1, 2, 3 의 목적격표지 추가 사용현상은 언어 유형론적 표지의 경제성과 초점화의 영향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형태적 표기에 대한 지나친 경제성원리는 의미표현에 부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이때 언어의 선상배열 방식은 또 다른 원칙 즉 도상성(象似性)원리의 지배를 받게 된다. (도상성의 뒷면에는 언어구조가 경험구조를 반영하며 화자의 객관세계 구조를 함축하고 있음을 내재한다 Croft, 2003 참조).

도상성(象似性)원리의 지배를 받아 유형 1, 2 에서는 앞쪽에 배열된 것이 돌출되고 유형 3 에서는 “부가적인 논항성분”이 “필수적인 논항성분”으로 상승되면서 자

연히 언어류(言語流)에서 주의를 더 이끌 수 있는 앞쪽으로 놓이게 된다.

예(11)도 예외가 아니다. 목적격표지에 표기된 4 개의 명사구는 논리학적으로 24(4×3×2×1)가지 배열순서를 구성할 수 있지만 그중 8 가지만 허용할 수 있고 나머지 어순배열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또는 비문을 형성한다.

單語順序원리/象似性원리: 작용방향(밖→안)

(17)내가 영희를 고등어를 큰 놈을 세 마리를 주었다 (동시작용)

語義靠近원리: 작용방향(밖←안)

象似性원리:작용방향(밖→안)

(18)내가 고등어를 큰 놈을 세 마리를 영희를 주었다 (동시작용)

大塊前置원리:작용방향(밖→안)

(19)*내가 큰 놈을 영희를 세 마리를 고등어를 주었다

보시다시피 예(17,18)은 순통한 문장이고 예(19)는 비문이다.

예(17)는 수혜자 “영희”에 목적격이 첨가함으로 표층구조 상 2 개의 직접목적어가 병렬된 가상을 이루지만 이때 언어 내부에는 語義靠近원리(동사와 의미관계가 긴밀한 목적어일 수록 통사적으로 서로 가까이 위치한다)에 의하여 직접목적어 “큰 고등어 세마리”가 서술어와 더 가까이 놓이고 單語順序원리(언어 표층구조에서 성분 간 선후 배열은 발화자의 사물인지도를 반영한다)에 근거하여 간접목적어 “영희”가 앞쪽에 놓이게 된다. 이때 핵심명사 “고등어”도 象似性원리의 지배를 받아 앞 쪽에 놓이기를 원한다. 즉 예(17)는 語義靠近원리의 뒤로 향하는 작용력과 單語順序원리 및 象似性원리의 앞으로 향하는 작용력이 동시작용한 결과이다.

같은 맥락에서 예(18)과 예(19)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예(18)에서는 “영희”가 후행하므로 근접성동인과 單語順序원리가 작용을 상실하지만과 大塊前置원리⁶와 象似性원리의 작용을 받아 순통한 구문을 이룬다. 한국어에서 (19)와 같은 어순이 허용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이러한 어순이 동시에 위의 원리를 다 위반하였고 한국어의 어순유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3. 한국어 주격 중출구문

한국어 구문에서 주격표지도 중복 출현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을 “주격중출”현상이라고 한다. 한국어 주격 중출 문제에 대해서는 임홍빈(1972), 신창순(1975), 김영희(1980), 이남순(1985), 성기철(1987), 윤종열(1990), 임동훈(1997), 안명철(2000), 유승섭(2004) 등의 논의를 들 수 있다. 본고는 선행연구에 의하여 한국어 주격 중출 구문을 아래와 같은 2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유형 1: “전체-부분”관계

(20)영희가 마음씨가 착하다→영희의 마음씨가 착하다

(21)그 책이 표지가 마음에 든다→그 책(의) 표지가 마음에 든다

⁶ 한국어는 좌분지언어로 핵(V)이 반드시 최종위치에 놓이며 목적어는 핵에 선행하는 어순규칙을 준수한다. 이러한 언어는 문장이해의 중심이 끝부분에 놓이므로 흔히 길고(어휘숫자가 많고) 복잡한 “고등어를 큰 놈을 세마리를”을 핵의 반대방향으로 이동시켜 기억부담이 적을 때 큰 덩어리의 성분을 처리해 버리는 경향(大塊前置)이 있다.

- (22)이 곳에 모인 사람이 노인들이 많다→이 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노인들이 많다
 (23)달이 보름달이 밝고 크다→달중에는 보름달이 밝고 크다

유형 2: 다른 격과 교체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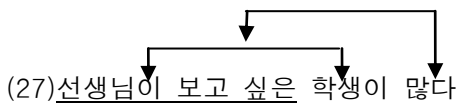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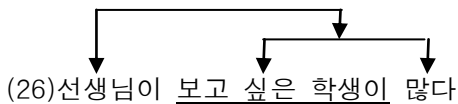
- (24)오늘은 내가 고기가 잘 잡힌다
 →오늘은 나한테 고기가 잘 잡힌다

- (25)요즘은 영수가 편지가 많이 온다
 요즘은 영수한테서 편지가 많이 온다/요즘은 영수한테 편지가 많이 온다

목적격 중출구문과 같이 주격 중출구문에서도 어순 제약을 받고 있다. 유형 1 과 유형 2 에서 A⁷는 반드시 B'에 선행해야 하며 “B'-A'”의 어순배열은 비문을 형성한다.

유형 1 과 유형 2 는 어순배열에 있어서 象似性원리에 따라 크고 전체적인 것이 앞에 놓이고 작고 부분적인 것이 뒤에 놓이거나(유형 1 참조), 생명도가 높은 것이 앞에 놓이고 생명도가 낮은 것이 뒤에 놓인다(유형 2 참조). 이때 앞에 놓이는 주격표지에 표기된 명사구는 보통 지배성이 강하고 지시성도 강하다.

한국어에는 풍부한 형태적 표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형태적 표지가 발달된 언어는 어순이 자유롭기 때문에 한국어와 같이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에서 때로는 화자가 강조하려는 성분이 어순조절(초점화)만으로는 이상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 형태적 표지는 표기되는 단어에 의미기능을 부여할뿐만아니라 화용론적 의미도 부여한다. 어순변화가 화용 상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는 격표지 중출표기로 그 수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이때 어순배열은 격표지의 화용론적 의미영향을 받아 자연히 일정한 순서(“전체-부분” 또는 “생명도가 높은 데사 낮은데로”)로 배열되기 마련이다.



위의 예문 “선생님이 보고 싶은 아이가 많다”는 중의성을 지닌다. 그것은 위의 예문이 “N-N-A”어순과 “Rel-N-A” 구조를 동시에 만족시켰을 뿐만아니라 “선생님”과 “아이”의 생명도가 증가적이기때문이다. 만약 생명도가 낮은 단어를 쓰면 중의성은 해소된다.

- (28)민지가 사고 싶은 옷이 많다
 (29)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이 많다

예(28,29)에서 “민지/아이”의 생명도는 “옷/음식”보다 우세이다.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옷/음식”은 선택받는 대상에만 국한된다. 때문에 예문(28,29)는 중의성을 지니지 않는다.

이렇듯 주격 중출구문에서 A'는 전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거나 또는 생명도가 높은 단어이어야 하며 “A'-B'”의 어순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⁷ 논술 전개의 편리를 위해 2 개의 주격표지에 표기된 명사구조를 각기 A'와 B'라고 약칭한다.

4. 결론

본고는 언어유형론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어 주격 중출, 목적격 중출 구문에서의 어순배열에 대해 살펴 보았다.

한국어는 형태가 발달된 언어로 명확한 주격과 목적격 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 주격(많이는 3 개)과 목적격(많이는 5 개)표지가 동시에 출현하기도 한다. 주격표지와 목적격표지가 중복 표기될 때 앞에 위치한 격표지에 표기된 대상은 전체를 나타내고, 소유주이며 생명도가 높고 지시성이 강한 등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고는 한국어 주격 중출구문과 목적격 중출구문은 어순변화가 화용 상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격표지를 이용하여 조정한다고 본다. 하지만 본고는 주격과 목적격 중출구문에서 한국어가 어순배열에 있어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런 제약은 경제성원리와 도상성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어 주격과 목적격 중복 표기는 유형적 표기의 경제성과 초점화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형태적 표기에 대한 지나친 경제성원리는 의미표현에 부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이때 언어의 선상배열은 다른 원칙 즉 도상성원리의 지배를 받아 인지하기 쉽고 중요한 정보를 지닌 단어를 앞쪽에 놓는 경향이 있다. 본고는 격표지와 어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를 설명하였다.

유형론적으로 목적격 중출 현상은 비교적 흔하다. 하지만 주격 중출 현상은 아주 드물다. 때문에 주격 중출 구문이 동사나 기타 여러 방면에서 어떠한 요구를 지니고 있는 지를 밝혀주는 것도 아주 의미있는 일로 향후 이 분야의 활발한 연구를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문헌

- Comrie, Bernard. *Language Universals & Linguistic Typology*(2nd. Ed.)[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89.
- Greenberg, Joseph H.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1966(1963), In Greenberg, Joseph H. (ed.) 1966. *Universals of Language*. Mass Cambridge: M.I.T. Press. First Edition, 1963.
- William Croft. *Typology and Universals*(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陸丙甫.“基于實語指稱性强弱的及物動詞分類”[J].《外國語》,2009(6).
- 陸丙甫.“從實語標記的分布間語言類型學的功能分析”[J].《當代語言學》,2001(4).
- 김영희. 복합명사구, 복합동사구 그리고 겹목적어[J].한글학회《한글》193,1986.
- 김영희. 정태적 상황과 겹주어 구문[J].한글학회《한글》169,1980.
- 서정수.《현대한국어 문법연구의 개관》[M].한국문화사, 1991.
- 성광수. 타동사 목적어와 중목적어[J].《어문논집》22,1981.
- 성기철. 문서술어 복합문[J].《국어학》16,1987.
- 신창순. 국어의 주어 문제연구[J].《문법연구》2,1975.
- 안명철. 이중주어 구문과 구-동사[J]. 국어학회《국어학》, 2000.
- 양정석. 이중 주어문과 이중 목적어문에 대하여[J].《연세어문학》20,1987.
- 우형식.《국어 타동구문 연구》[M]. 박이정, 1996.
- 유동석. 국어의 격중출 현상에 대하여[J].《국어학》31 집, 1998.
- 유동석. 국어의 목적어 이동과 주제화[J].《국어학신연구》.탑출판사,1986.
- 유승섭. 국어 겹목적어 구문의 격 정검 현상[J].《한글》263, 2004.
- 윤종열. *Korean Syntax and Generalized X-bar Theory*.한신문화사, 1990.
- 이남순. 주격 중출문의 통사 구조[J].《국어국문학》93,1985.
- 임동훈. 이중주어 구문의 통사구조[J].《한국학보》19,1997
- 임흥빈. 국어의 주제화 연구[J]. 국어연구회《국어연구》28,1972
